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플러스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20.(금)

기상 변동성 큰 올겨울, 농업 기상재해 선제 대응한다!

- '엘니뇨' 현상, 12월에 절정 전망…11~12월 기온·강수량 평년보다 높아

- 농촌진흥청, 동해·저온해 위험 예측 정보 제공

- 대설·한파 피해 최소화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겨울 기상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겨울(11월~내년 1월)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도 평년(89.0㎜)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평균 강설일수는 15.9일로 평년과 비슷하다고 예보했다.

*평년 :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값

엘니뇨* 감시구역(Nino3.4) 해수면 온도는 현재 평년보다 2.6도 높은 상태다. 강한 엘니뇨**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지고, 12월에 최성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

**해수면 온도 편차 1.5℃ 이상

특히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기온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겨울 나타난 지역·시기별 강설량 편차와 잦은 기상특보* 등 변동성이 엘니뇨와 맞물려 더 커질 수 있다.

*(강설량) 올해 1~2월 전라권 23㎝, 경상권 0㎝ / (특보) 3월 특보 횟수 30회로 최근 10년의 2배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기상 상황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농업 분야 피해 가능성을 분석했다.

△잦은 강우= 12월 출하 예정인 겨울 배추·무에 무름병이 번지거나 생육 부진이 우려된다. 마늘·양파 등 월동 작물의 뿌리 활착이 늦어져 한파에 노출되면서 냉해 피해를 볼 수 있다.

△기습 한파= 저온에 노출된 작물의 세포 조직이 파괴돼 과수 꽃눈이 어는 피해(동해)가 우려된다. 시설 채소 생육 억제와 원예 작물 시듦 현상 등 냉해와 동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대설= 무거운 눈(습설)이 쌓이면 비닐하우스나 축사가 붕괴할 위험이 크다. 과수 가지가 꺾이거나 일조량 부족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곰팡이병 발생 가능성도 높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상재해 위험 예측 정보를 전파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 예측= 12월부터 '동해·저온해 발생 위험 예측 정보'를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재해 담당자와 농업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알림톡)로 보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사전 예방= 작물 재배 시기별로 발생 우려가 큰 기상재해 및 병해충 예방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농작물 월동 관리 요령을 담은 온라인 자료와 안내 책자를 보급한다.

△상황 관리= 상시 운영하는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각 지역 기상 상황과 피해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특이 사항에 신속히 대응한다. 영농종합상황실은 비상 발령 시 '재해대책상황실'로 확대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병진 과장은 "올겨울은 엘니뇨 영향으로 기습

한파, 폭설 등 급격한 날씨 변화가 우려된다.”라며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 예방 체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엘니뇨 영향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방안 요약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정병진 (063-238-1040)
		담당자	지도사 이우일 (063-238-1046)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엘니뇨 영향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방안**

□ 겨울철 기상 전망(’ 26.11.~’ 27.1.)

○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 평년 대비 2.6℃ 높음, 12월 최성기 가능성 높음

○ **(기온)** 평년(0.5℃)과 비슷하거나 높음
- 북극해 해빙 감소로 찬 공기 유입 등 기온 변동성 큼

○ **(강수량)** 평년(89.0㎜)과 비슷하거나 많음
- 지역·시기별 강설량 편차, 잦은 특보 등 변동성 심화 전망

○ **(강설일수)** 전국 평균 15.9일, 평년 및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
※ 최근 3년 강설일수: ’25년 14.5일, ’24년 21.9일, ’23년 16.1일

□ 기상 상황별 예상 피해

○ **(잦은 강우)** 정식뿌리 활착 지연 → 기습 한파 시 냉해, 수확 지연·저장성 저하
- (배추·무) 무름병, 결구 불량 / (마늘·양파) 과습 후 냉해 / (밀·보리) 파종 지연

○ **(기습 한파)** 저온 노출에 따른 세포 조직 파괴 → 생육 정지 및 고사
- (과수) 꽃눈·어린 가지 동해 / (시설채소) 저온 장해 / (월동작물) 뿌리 손상·동사

○ **(대설)** 적설 하중에 따른 시설 붕괴, 일조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 (시설) 골조 변형·비닐 파손 / (과수) 가지 꺾임 / (노지) 작물 매몰, 곰팡이병

□ 대응 계획

○ **(위험예측)** 동해·저온해 발생 위험 예측 정보 공문·알림톡 발송(’26.12.~)

○ **(사전예방)** 주요 재배 시기별 기상재해·병해충 피해 예방 기술 지원
- 겨울철 농작물·시설물 월동 관리 요령 카드뉴스·리플릿 보급
- 겨울철 기상재해(대설·한파) 대응 현장기술지원단 운영(’26.11.~)

○ **(상황관리)** 상황실 운영, 기상·농작물 상황 모니터링 및 지역 동향 파악(1회/일)